

장마철 농경지 침수 애타는 농심...뒤풀이 농어촌공사

나주 송촌동 농수로 부실공사
“맨홀 붕괴” 수로감시원 신고 목살
불법 컨테이너 철거 요청도 모르쇠



농어촌공사의 부실 공사로 맨홀이 무너지면서 수로가 막혀 인근 과수원과 농경지의 침수피해 원인이 되고 있다. (왼쪽) 또 불법 컨테이너가 농수로를 막아 농기계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부실 공사로 맨홀이 무너졌다고 신고했는데 나 몰라라하더니 결국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가 농민들의 민원을 목살해 농경지가 침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주시 송촌동 수로감시원 A씨는 30일 “농어촌공사가 지난 3월 수로정비 공사를 진행했는데 부실공사로 맨홀이 무너져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만 오면 물이 독을 넘어 과수원과 논으로 쏟아져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불법 컨테이너가 농수로를 막아 농기계 들어갈 수 없어 농어촌공사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수로감시원으로, 수로에 이상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신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신고에도 농어촌공사가 4개월째 묵살하면서 농가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A씨의 신고를 받은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4월께 한차례 현장 방문을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나주시지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 관계자는 “올해

봄 수로공사 후 흙이 흘러내려 맨홀이 무너진 것 같다”며 “임시로 흙을 올리고 장마 후 배수로와 용수로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성군 ‘숨은 군민 찾기’ 시동 기업체 직원 대상 ‘전입 유도’

장성군이 지역 내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 군민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장성군의 고용률은 68.9%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300여명 증가했다.
‘숨은 군민 찾기’ 운동은 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실거주자의 전입을 유도·지원하는 활동이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많은 400여 곳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4개 산단별 협의체와 간담회를 열어 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15만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입한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체, 기관, 단체 등에도 30만~300만원의 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결혼 축하금, 기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전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청사 신축 계획, 의회서 제동

예산 확보·군민 여론조사까지 마쳤는데도 부결...노조 “권한 침해” 반발

40년 이상 지나 노후된 데다 안전 문제까지 겹쳐 신축이 불가피한 장흥군청사 건립 계획(광주일보 5월 19일자 11면)에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군민과 공무원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77년 건립된 군청사는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안전취약시설물) 판정을 받았다.
장흥군은 397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새 청사를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장흥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조례에 따라 현재 300여억원을 확보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지난 1월 의원 간담회에서 ‘장흥군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

고했다.
최근에는 장흥군의회 제안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주)코리리서치 ARS 조사,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군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차례나 부결했다.
장흥군의회 관계자는 “청사 신축은 의원을 모두 찬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청사는 현 부지보다는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청사신축 기금이 300억원 정도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이전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개장 함평군, 한우 등 신선 식재료 공급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가 31일 공식 개장한다. (사진)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생비빔밥 식재료센터는 함평군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이 위탁 운영한다.
함평군은 지난 4월 공모와 6월 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 함평군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을 위탁 운영체제로 최종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2년이다.
함평군은 2018년 총사업비 6억여원을 들여 함평읍에 위치한 비빔밥테마거리에 99㎡(약 30평) 규모의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를 건립했다.
지역 대표 음식인 한우 생고기 비빔밥을 육성하고 관련 식재료를 신선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육 장비와 냉동·냉장실 등 15종의 각종 설비도 갖췄다. 함평군은 식재료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육류와 양파, 마늘, 호박 등을 판매하고 관내 생비빔밥 업체에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잘 키운 여름보약 ‘장성 차돌복숭아’ 본격 출하 일교차 큰 고랭지서 재배...아삭한 식감·달콤한 맛 일품

아삭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장성의 여름철 대표 특산물 ‘차돌복숭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여름철 보약으로 각광받는 차돌복숭아가 진원면과 남면 재배지를 중심으로 8월 중순까지 약 20여 일 동안 출하 중이다.
차돌복숭아는 일교차가 큰 불태산 자락의 고랭지에서 재배돼 다른 지역 복숭아보다 당도가 높고 단단해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다.
까칠까칠한 털이 없고 매끈해 바로 씻어서 곱질 채 먹을 수 있고, 과육이 단단해 쉽게 물러지지 않아 냉장 보관 시 1개월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정도

로 저장성이 뛰어나다. 체력 소모가 많은 여름철에 제격인 차돌복숭아는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을 돕고 노화방지도 좋다.
불태산 차돌복숭아는 공동출하 조직을 통해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최상품만이 공판장·백화점·대형마트 등에 공급된다.
산지 직접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남면농협 로컬푸드직매장(061-394-7500)과 진원농협 공선회(061-392-5034),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의 한 과수농업인이 여름철 대표 특산물인 ‘차돌복숭아’를 출하하기 위해 수확하고 있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